

으로 발전이 되었으나 Heidegger에 있어서는 神에 대하여 積極的인 發言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 有神論的 神의 存在를 前提하지 않는 無信仰的인 基礎存在論이 된 것이다.

Bultmann이 Heidegger의 實存思想의 影響아래 그의 實存論的 解釋學의 方法論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神學體系를 確立함으로써 現代神學에 劃期的인 影響을 미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神學이 전통적인 기독교信仰과는 그 思想의 根源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Cobb는 Bultmann新約神學은 단순히 "Heidegger의 哲學을 기독교神學으로 洗禮를 주었다."⁴⁹⁾라고 했으며 (baptizing) Ladd(George E. Ladd)는 Bultmann의 著書를 읽어가면 그가 正統主義 神學者가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음을 보여준다⁵⁰⁾라고 했으며 Barth까지도 Bultmann의 神學的인 立場이 人間主義的이며 神學을 人間學으로 還元시키려하는 企圖⁵¹⁾라고 批難했다.

人間의 救援問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안에서 활동하고 부처(佛)안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聖父와 聖者와 聖靈의 三位一體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十字架의 죽음이 史實的인 事件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代贖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예수그리스도의 復活과 昇天을 한갓 神話로 봄으로써 新約聖經의 非神話化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볼때 그의 神學的인 土台가 人間에 대한 하나님의 自己啓示의 冊인 聖經이 아니고 同時代의 支配的인 影響力을 갖었던 哲學思想임을 알 수 있다.

Bultman이 19世紀의 神學을 批判하기 위해서 前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自身の 神學的인 立場이 역시 歷史의 產物인 동시대의 哲學思想이었기때문에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그것이 자지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들이 暴露됨으로써 해서 것처럼 극성을 부렸던 Bultmann의 實存論的 神學도 1960年代 이후부터는 그 影響力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49) Introductory Studies im Contemporary Theology, Robert Reymord 1968, p. 186.

50) Ibid p. 187.

51) K. Barth, Kirche Dogmatics 111 p. s.331.

B. F. Skinner의 人間觀

韓 基 台*

◇ 目 次 ◇

- I. 序 論
- II. 그의 生涯와 主要 著書 — 그의 人間性과 人間觀의 反映的 要素
- III. Skinner의 急進的 行動主義 人間觀 — 還元主義的 生物觀
 - A. 核心概念 概要
 - B. 學習機械論的 人間觀
 - (1) S-R의 修正 因果論
 - (2) 反應的 動物論
 - C. 決定論的 人間觀
 - (1) 解說的 虛構說(Explanatory Fiction)의 反論
 - (2) 生存과 強化수반물(Contingencies of Survival and Reinforcement)-그의 環境論
 - D. 他律的 人間觀 — 內的 因果 無用論
 - (1) 自由와 選擇(Freedom and Choice)
 - (2) 自制(Self-Control)
 - (3) 思考, 決定, 創意性(Thinking, Decision — making, Creativity)
 - (4) 情緒(Emotion)
 - (5) 特性(Traits)
- IV. 評價와 結論.

I. 序 論

心理學이 哲學에서 독립하여 科學의 학문으로서 獨步的 걸음을 걷게된 이후 1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두된 心理學派는 실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보다 광범위하게 알려진 代表的인 學派들을 몇가지 열거해 본다면 Genetic Psychology, Structuralism, Functionalism, Dynamic Psychology, Hormic Psychology, Psychoanalysis, Gestalt Psychology, Operationism (Skinner는 E.Mach의 *Science of Mechanics*와 H. Poincare의 *Science et Methode*에서 operationism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初期 理論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¹⁾ Factorial Analysis, Semantics, Neo — scholastic Psychol-

*교수, 교육학 전공

1) B. F. Skinner,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New York : Alfred A. Knopf, 1979, p. 66.

ogy, Conditioned Reflex Psychology, 그리고 美國의 行動主義 심리학파등이다.²⁾

行動主義 심리학은 現代 심리학의 한 主流을 형성하고 있다. 이 心理學派 역시 다양한 입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現代 行動主義 심리학의 뿌리는 J. B. Watson (1878-1958)에게서 발견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行動主義者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Watson의 주장은 심리학의 적절한 對象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行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구라파에서 盛行했던 內省法 심리학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기도 하지만 또한 意識의 內面世界를 중요시하는 Freud의 精神分析學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다.

Hegel의 변증법 圖式에 적용시켜 精神分析學을 正이라고 한다면 行動主義는 反, 人間主義 심리학은 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Watson에 따르면, 심리학은 科學으로서 人間 行動의 발달에 연루된 複合要因들을 탐구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인간을 理解하고 그 行動을 統制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人間行動에 있어서 行動主義 심리학자의 관심은 방관자(spectator)의 것 이상의 것이다. 行動主義者는 물리학자들이 自然現象을 통제하고 操作하고자 하는 것처럼 인간의 反應을 통제하려고 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과제는 인간의 활동을 豫測하고 통제하려는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實驗方法으로 科學的 資料를 수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훈련된 行動主義者는 주어진 자극에 대해 어떠한 反應이 일어날 것인가를 豫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反應에 대하여 그러한 반응이 야기시킨 狀況이나 자극이 무엇인가를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³⁾

행동주의자에게 必須의인 用語가 된 자극과 반응의 개념은 인간행동을 설명, 예측, 통제하기에 도움이 되는 劃一的인 법칙을 개발하기 위해 提起된 것으로 Watson은 설명하고 있다. 자극이란 有機體의 內的 또는 外部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變化로서 규정된다. 예를 들면, 飢餓상태(hunger)는 內的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이며, 돌발적인 高音은 有機體의 外部的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인 것이다. 反應이란 자극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有機體의 行動이며, 따라서 食物을 구하거나 귀를 막는 행동은 飢餓나 高音의 자극에 대한 反應이다. 各個의 자극은 反應과 연계되어 있다는 중대한 原理는 行動主義 심리학의 基本法이 된 것이다.

이 Watson의 中核의인 通則에서 여타의 입장들이 派生되기는 했으나 모든 행동주의자들이 일치되는 주장은 個人이란 條件形成의 結果라는 공통된 法則이다. 따라서 行動主義者는 자극—반응圖式(S-R paradigm)을 인간학습의 基本 패턴으로 본다. 개인이 훈련과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豫測할 수 있는 反應을 하게 됨으로 결국 인간은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고 단지 자극에 대한 反應이 더 복합적이며 더 높은 수준의 體系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 H. K. Wells, *Ivan P. Pavlov*,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rss, 1956, p. 10.

3) I. B. Watson, *Behaviorism*, New York: W. W. Norton, 1924, p. 11.

따라서 行動主義 人間觀에 있어서 핵심적인 用語는 條件形成(conditioning)이다. 조건형성에는 여러 類型들이 있으나 대개 두 基本的 유형이 대표적이다. 즉 古典的(또는 respondent) 조건형성과 “機操的”(또는 instrumental)⁴⁾ 조건형성이다. 古典的 조건형성이란 단순한 학습상태로서 條件形成된 자극물(예를들면 빛)이 非條件形成된 자극물(음식)과 짝지어져 반복됨으로 조건형성된 특정한 反應(唾液)을 유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⁵⁾

Skinner에 따르면 Pavlov의 조건형성은 조건형성된 자극에 의해 誘發된(elicited) 반응의 強度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이다.⁶⁾ 이것은 처음 Pavlov가 음식과 개의 타액으로 얻은 유명한 實驗으로 立證된 類型의 조건형성이다.

反面에 Skinner가 주장하는 機操的 조건형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實驗과 연관된 유형인데 그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된 學習의 한 형태로서, 유기체에 의해 發出된(emitted) 반응은 환경에 작용하여 積極的 強化物을 생산하거나 또는 消極的 強化物을 除去하며, 따라서 그 반응이 再發될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⁷⁾

Skinner자신은 이렇게 說明하고 있다. 機操的條件形成에서는 反應의 개연성을 증진시키고 또는 실제로 頻度數를 높인다는 意味로서 機操物을 “強化”한다는 것이다. (In operant conditioning, we “strengthen” an operant in the sense of making a response more probable or, in actual fact, more frequent).⁸⁾ 따라서 機操的條件形成은 “機操”(operation)와 過程(process)으로 구성되어 “機操”(operation)란 환경조건을 配列시켜 특정 강화물이 특정 반응의 發出(emission)을 뒤따르는 것이며, 過程이란 그 결과로 이 특성의 특성들을 소유한 反應의 頻度數가 증가 한다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⁹⁾

Skinner자신이 발명한 소위 Skinner Box¹⁰⁾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動物이 지렛대를 미는 것을 學習하고 음식의 補償을 받게된다(positive reinforcement). 이 행동의 패턴은 결국 학습 되어진다. 機操的 條件形成의 학습원리는, 새로운 學習은 적극적 강화의 결과로 발생하고 낮은 패턴은 소극적 강화의 결과로 포기되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道具로서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다시 말하면 환경의 자극물, 反應 그 자체와 強化된 결과 사이의 相互關係를 통제하는 強化의 수반물(contingencies of reinforcement)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는 原理이다.

4) 어떤 心理學者는 “道具的 條件形成”을 機操的 條件形成과 同義語로 사용하지만 Skinner자신은 道具的 條件形成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5) Cf. R. B. Ewe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p. 404.

6)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Free Press, 1953, p. 65.

7) S. Smith, *Ideas of the Great Psychologists*, New York: Barnes & Noble Books, 1983, p. 194. R. B. Ewen, *op. cit.*, p. 405.

8) B. F., Skinner, *op. cit.*, p. 65.

9) R. I. Watson, *The Great Psychologists*, 4th ed., New York: Harper & Row, 1978, p. 598.

10) Skinner자신은 이 用語대신 operant conditioning apparatus란 用語를 選好한다.

行動主義 系譜에서 Pavlov와 Watson의 맥락을 계승한 Skinner는 Watson의 現代 후계자로 사려되고 있다. Watson은 극단의 환경주의자였고, 적절한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간은 條件形成될 수 있다고 믿었다. Skinner는 人間을 理解함에 있어서 심리학은 觀察可能한 條件들에 역점을 둘 것이며 觀察不可能한 內面的 精神世界에 對한 抽象化를 포기하고 主觀的 접근을 회피함으로 科學的인 客觀化를 目標해야 한다는 Watson의 주장을 共有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現代 心理學者들은 온건파에 속하여 人間技能에 대한 解說試圖에 있어서는 中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決定要因들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또한 態度, 認知的 過程, 動機와 같은 내면적 결정요인들도 고려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Skinner는 온건파가 아닌 急進的 行動主義者로서 자처하기 때문에 그는 人間이란 객관적으로 세밀한 用語로서 해명되고, 明細化 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들에 의해 통제 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개인의 精神世界 범주에서는 人間 行動의 어떤 원인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해명할 수 있는 目的意圖에 대한 內的 動機나 정신상태의 全體化의 필요성도 否認하게 되는 것이다.¹¹⁾ Skinner는 “radical behaviorism이란 입장을 選好한다. 여기에서는 主觀的 實體의 존재가 否認되어진다. 주관적인 用語란 言語學的 構造이며 人類가 言語 발달의 과정에서 빠진 文法의 함정이다. …… 行動科學은 단순히 낡은 것에 대한 새로운 用語가 아니고 심리적, 주관적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새로운 概念을 제공해 주었다. ……”¹²⁾ 그러므로 Skinner는 연구에 있어서 심리학이 暗黑時代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性格 理論에 침투되어 있는 非科學的인 構造論을 배격하고 人間행동을 外部的 環境의 技能으로 연구하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記述한다.

“因果的連鎖(causal chain)는 세가지 연계關係(links)로 區別되는데, (1) 飲水결핍과 같은 外部에서 有機體에 作用하는것, (2) 生理的 또는 精神的 기갈 같은 內面的狀態, (3) 飲水와 같은 일종의 行動이다. 여기에서 3)의 연계성을 (1)의 技能으로서 검토하는 徒勞를 회피할수 있으며 (2)의 연계성은 이 關係를 鮮明하게 할수는 있으나 變化시킬수는 없다. …… 그러므로 나의 反論은 內面的 狀態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狀態들이 技能的(i. e., 因果的)분석에는 適切성이 없다는 것이다”¹³⁾

이와같이 Skinner는 Watson의 行動主義 맥락을 固守하면서 高度로 發達된 研究技法을 개발하고 방대한 科學的 資料를 收集하여 매우 중요한 行動主義 原理들을 提示했다. 그가 急進的 行動主義의 대표적 인물로서 確固不動한 地位를 확보한 것은 아무도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學習分野에 영향을 끼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要因

11) R. D. Nye, *Three Views of Man*, Monterey, CA.: Brooks/cole, 1975, p. 37, 참조.
12) B. F. Skinner,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pp. 117-118.
13)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34-35.

들을 그는 치밀하게 묘사했고, 그 결과들로, 인간이 객관적으로 明瞭化될 수 있고 操作할 수 있는 상황들에 의해 통제받는 존재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Skinner의 극단적인 입장에 全적으로 共感할 수는 없으나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풍부한 資料로서, 그가 人間理解에 공헌한 急進的 行動主義者의 眼目에서 본 그의 人間觀을 고찰하여 그의 思想을 分析, 批判, 評價하려는데 이 論文의 目的이 있다.

II. B. F. Skinner의 生涯와 主要著書

Burrhus Frederic Skinner는 1904年 3월 20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Susquehanna에서 장노교 背景을 가진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형제라고는 2세 아래인 동생 Ed. James뿐이었으나 그는 Skinner의 大學時節에 急性 消化不良으로 사망했다.

그의 祖父인 James Skinner는 英國 Devenshire태생으로 그의 70세 초기에 美國으로 건너온 사람이었다. 변호사이던 父親 Wm. A. Skinner는 獨子로서 이웃 사람에게서 “Big I and little u”라고 별명을 얻을만큼 自慢心이 강했고 圓滑한 對人關係가 어려워 친구의 交分이 적었던 사람이었다.

Burrhus란 이름은 母親의 姓으로서 언제나 남에게 그 綴字를 말해 주어야 했고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겨움을 겪었다고 그는 회술하고있다. 母親은 매력있고 人氣있는 미모의 女性으로서 풍부한 정서와 宗教心이 강한 여성이었고,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演奏와 엘토 獨唱者로 이웃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다. 자식들에게 獻身的인 어머니였으나 남편에 대해서 性的問題에는 淸教徒的인 관념을 가졌었다.

B. F. Skinner는 田園的 環境과 따뜻한 가정분위기에서 改新教의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가 슬회하는 첫 宗教教育은 5세나 6세때 일로, 그의 祖母로부터 거짓말은 절대 禁忌라는 교훈이었다. 뜨거운 난로에 불타는 石炭의 視覺教育이 加味되어 거짓말하는 어린이는 死後에 악마가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는 補償論의 훈계였다. 그일이 있는 얼마후 어떤 사람이 자기 숙부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은 했으나 事實은 曾祖父였음이 밝혀졌다. 이“거짓말”로 자신이 실제로 激痛을 경험했고 그당시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던 後悔心, 恐怖, 絕望感은 지금고 느낄 수 있다고 슬회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父母에게서 體罰을 받은 일이 없고 兄弟와의 싸움에서 동생을 욕 했을 때 그의 모친이 화장실에서 물수건과 비누로 그의 입을 말끔히 씻은 단 한 번의 受罰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는 倫理道德的 感受性이 강했던 소년이었다. 상점에서 망원경을 집어 보다가 故障난 것을 그대로 놓고 나와 몇일간 죄책감으로 고민했고 철망울타리에 앉아있는 다람쥐에게 돌을 던져 本意아니게 맞춘 것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 침울하게 지냈다.

5學年때 宗教와 종교관념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고 이 세상의 不公平性을 感知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補償論을 정립했다. 즉, 來世의 賞罰은 이 세상의 不均衡性에 균형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자신이 그렇게 믿는 동안 實用的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은 이것을 위대한 神의 啓示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補償論의 “眞理性”에 대한 완전한 실현¹⁴⁾으로 느꼈던 것 같다.

10세때쯤부터 단편小說이나 詩를 쓰기 시작했던 그는 고등학교와 大學에서도 文學愛好家였다. 大學에서 心理學 課目을 선택한 적이 없었고 그가 Freud의 이름을 처음 들은것은 Utica에 있는 책방 女主人 Mary Ogden에게서 었는데 Frueh라는 *New York World*의 漫畫家 이름인줄 알았다고 한다.¹⁵⁾

그는 1926년 뉴욕주에 있는 Hamilton大學을 졸업했다. 專攻은 英文學이었고, 로맨스 言語를 副專攻으로 선택 했었다. 作家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이었고 유명한 詩人 Robert Forest에게 보낸 자신의 단편소설들이 긍정적인 反應을 받아, 大學 졸업후 小說作家로서의 경력을 試圖했으나 실패한 이후로 文學에 대해 가혹한 反발을 하게 되었다고¹⁶⁾ 회술하고 있다.

그는 多方面에 취미와 才能이 있었다. 피아노와 섹스폰을 즐겼고 섀매, 모델비행기, 시이소, 스쿠우터등을 創案 설계했고 심지어는 친구와 함께 Tenniball이라는 게임을 창안해 설명서와 함께 弘報했으나 단 하나의 注文도받지 못했다.¹⁷⁾ 이러한 才能은 후에 하바드 大學에서 “Skinner Box”를 비롯한 여러 實驗道具의 설계와 발명에 공헌을 했겠지만 異性과의 대인관계에서도 그 실용성을 발휘했다. Welesley大學長이 졸업생들을 위한 party에 자기 동반자가 衣裳에 맞는 帽子를 찾지 못해 당황할 때 들은 상점에서 필요한 材料를 구입하고 그는 철사와 接着劑를 구입하여 郊外에 자동차를 駐車시켜 놓고 그속에서 성공적으로 모자를 만들어 내어 party에 참석했다.

그의 情熱적이고 浪漫的인 인간 면모를 엿보이는 에피소드로는 자신의 垂範이 된다고 생각하는 貞淑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女性의 다리에 너무나 쉽게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자신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솔직한 告白이라던가,¹⁸⁾ 하바드 大學院生 Nedda와의 수개월간의 연애가 決裂되었을 때 격심한 육체적 고통까지 경험했고 N모양의 철사를 바 하나에 加熱시켜 N모양의 火印을 왼쪽 팔에 남긴 것들이다.¹⁹⁾

大學 졸업후 2년간 作家로서의 경험은 時間 낭비임을 깨닫고 1928년 하바드 大學院에서 人間과 動物의 行動에 관한 연구를 심리학 분야에서 추구하게 되었다. 午前 6시 起床, 아침 식사時까지 연구, 강의, 실험실, 도서관의 왕래, 저녁 9시까지 연구, 9

시에 정확히 취침하는 2년간의 엄준한 생활을 훈련받았다. 영화나 연극을 볼 겨를도 없이 心理學과 病理學 이외의 서적은 독서하지 않았다.²⁰⁾

그가 pavlov와 Watson의 研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이때였다. 한때 行動主義에 관심이 많았던 B. Russell의 영향을 받았으며, 개미의 向地性, 질신벌레의 向性, 그리고 실지 動物實驗으로 pavlov의 條件反射를 토론하는 病理學과목을 선택하고, 1929년 8월에 하바드醫大에서 열린 국제물리학회에서 pavlov의 會長 就任辭(가재비의 가위 속에 있는 神經은 海流의 強弱에 따라 어떤 神經을 자극함으로 일어나게되는 가위의 開閉作用에 관한 研究)를 들었고 자원하여 會議에서 환등기(slide projector)를 조작하는 것도 맡아했다.

그는 反射概念이 심리학의 全領域을 포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²¹⁾

1931년에 “有機體의 모든 運動은 자극에 대한 反應”(Every movement of an organism was in response to a stimulus)이란 假定을 제시했고²²⁾ 그 해에 획득한 博士學位 論文을 위해 行動을 反射로 구분짓고 그 힘의 測量法을 설계하고 그 變數에 대하여 그 힘이 函數가 되는 조건형성, 動因, 정서의 분야를 탐구할 것을 提言했다. 口述試問에서 G. W. Allport가 “行動主義에 대한 反論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反論도 생각해 낼 수 없어 당황 했다고²³⁾ 자신의 立場의 확고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바드를 졸업한후 5년간 연구에 몰두했고 1936-1948년까지 미네소타大學과 인디애나大學에서 教授한후 하바드에 돌아와 현재에 이르고있다.

1936년 Yvonne Blue와 결혼하여 두 딸이 있다.

主要著書 — 그는 10餘卷의 著書와 수많은 논문을 썼으나 主要한 저서로는 行動主義者의 理想社會를 묘사한 *Walden Two*(1948)가 있고, 그의 立場을 가장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Science and Human Behavior*(1953)와, 人間과 動物의 唯一한 차이점은 “言語行動”의 高度水準의 複合性이라고 주장한 *Verbal Behavior*(1957), 그의 教育에 대한 立場과 견해를 피력한 *The Technology of Teaching*(1968), 人間の 自律性을 부인하고 인간행동에 대하여 통제 必然性을 강조하여 社會改革을 제안한 *Beyond Freedom and Dignity*(1971), 그리고 그의 立場에 대한 20여종의 일반적 비판에 대한 答辯을 試圖한 *About Behaviorism*(1974)등이 있다.

III. Skinner의 急進的 行動主義 人間觀 — 還元主義的 生物觀

A. Skinner의 核心概念 概要

그의 人間觀을 구성하고 있는 核心的인 개념들을 요약해서 記述한다면 대략 다음의

14) B. F. Skinner, *Particulars of My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1976, p. 110 참조.

15) *Ibid.*, pp. 201-202

16) B.F. Skinner,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p. 90.

17) B. F. Skinner, *Particulars of My Life*, p. 164.

18) B. F. Skinner,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p. 6.

19) *Ibid.*, p. 137.

20) *Ibid.*, p. 5.

21) *Ibid.*, p. 70.

22) *Ibid.*, p. 102.

23) *Ibid.*, p. 75.

項目으로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1) 機操的 行動(operant behavior)은 誘發(elicited)되는 것이 아니라 發出(emit- ted)되는 것이며 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反應的 行動(respondent behavior)은 눈의 깜박임, 무릎의 反射作用, 唾液, 어떤 恐怖反應과 같이 조건형성 될 수 있는 행동이며 機操的 行動(operant behavior)은 독서, 자동차 운전, 樂器演奏 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意義있는 反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개인을 규 정짓는 것이다.²⁵⁾

2) 機操的 行動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強化이며, 그것은 행동을 強化하는(strengthen) 결과가 된다. 이 過程이 곧 機操的 條件形成이며, 이 強化概念은 Skinner의 行動分析의 本質을 형성한다.²⁶⁾

3) 條件形成된(強化된) 行動들은 인간의 많은 행동들에 관련된 典型的인 反應으로 구성되어 진다. 他人에게 承認받는 말씨, 衣服차림등의 반응은 父母, 教師, 同僚들의 승인과 讚辭에 의해 강화됨으로 이들 社會的 強化물은 행동의 조건형성에 중요한 役割을 하게된다.²⁷⁾

4) 迷信的 行動(superstitious behavior)들은 반응과 강화 사이의 偶發的 關係의 결과이긴하나 杻의으로 偶發的인 것은 아니다. 인간 행동은 “극히 미신적”(“heavily superstitious”)인 것으로 祈雨무용, 自動에리베이터의 信號를 반복하여 누르는것등의 일상생활의 수많은 事例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²⁸⁾

5) 人間은 強化되지 아니한, 그리고 그 결과로 強度가 감소되는 反應을 한다. 즉 그 반응들은 消去된다. 機操物(operant)이 강화의 結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때 야기되며 機操的 條件形成보다 훨씬 느리게 발생하므로 지연된 消去의 결과인 상태는 마치 다른 원인에 基因된 非活動과 방불하다고 한다.²⁹⁾

6) 人間特有的 “퍼서네리티”들은 주로 그 개인의 強化 經驗史(personal history of reinforcements)의 결과이다. 그것은 반응의 確率이 강화와 그리고 消去의 경험사로서 설명 되어진다는 것이다. Skinner의 原理에 의하면 論爭的이고 暴力的인 인물과 溫厚한 성격의 인물에대한 決定的 要因은 두개인의 환경背景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發出(emit)하게된 강화 경험사의 차이이다.³⁰⁾

7) 많은 條件 形成된 強化物들(돈, 학점, 사회적 認定과 같은것)은 인간의 행동에

24) R. D. Nye, *op. cit.*, pp. 53-54 참조.

25)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59-90. R. D. Nye, *op. cit.*, pp. 44-45. 참조

26) B. F. Skinner, *op. cit.*, pp. 62-66. B. F. Skinner, *About Behavior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4, pp. 44, 51.

27) R. D. Nye, *op. cit.*, pp. 45. R. B. Ewen, *op. cit.*, p. 396 참조.

28)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 55, 85-87, 350, 351. cf. R. B. Ewen, *op. cit.*, p. 412. R. D. Nye, *op. cit.*, pp. 45 참조.

29) B. F. Skinner, *op. cit.*, pp. 69-72, 53, 58 R. D. Nye, *op. cit.*, p. 47.

30) B. F. Skinner, *op. cit.*, pp. 71-72.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강화물들은 일차적 강화물(음식, 溫情, 포옹등)과 관련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뿐아니라, 이 조건형성된 강화물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행동들을 통제한다. 이 類型的 強化물은 일반화 강화물(generalized reinforcer)이라고 하나 以上の 일차적 강화물과 관련되어져 있다.³¹⁾

8) 施罰(Punishment)은 行動을 억압하도록 설계된 행동통제 技法이나 Skinner는 그 사용을 반대한다. 그는 “소극적 강화”와 “시벌”을 구분하는데, 前者는 嫌止的 자극(aversive stimulus)이 除去되어 그 제거에 先行된 행동의 확율이 증가된 결과를 초래한 현상으로 보고, 後者는 嫌止的 자극이 첨가 되거나 또는 적극적 강화물이 除去되어 적어도 감정적으로 行動의 억압(suppression)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게된 현상으로 설명한다.³²⁾

9) 변별력(Discrimination)이란 한 특별한 자극이 존재할 때에만 강화물이 주어지는 결과를 발생케 하고 또,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知覺할 수 있을때 자기 다른 方法로 반응하기를 學習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隨件性이란 Skinner의 實驗에서 강화(음식)가 어떤 反應(비둘기가 목을 뺏는 것)을 뒤따르는 과정이 자극(전깃불)일때의 상황을 말한다. 즉 두 자극 사이의 差異에 따라 反應의 頻度數가 증가되는 현상과정을 의미한다.³³⁾

10) 造形法(shaping)은 학습과정에 必須的인 역할을 하는것으로 機操物(an operant)의 학습에 있어서 時間의 지연을 단축시켜 학습과정을 加速化 시킴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訓練시켜 나가는 것이다.³⁴⁾

B. 學習機械論的 人間觀

快樂主義 特性和 反應적 動物觀, 內面世界的 因果律을 시인하는 Freud의 精神分析學에 대한 반응으로 派生된 行動主義가 심리학과도 아니고 음준한 학설도 아닌 하나의 方法論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을 받으리만큼³⁵⁾ 行動主義者들의 核心的이고 優先的인 관심사는 學習過程에 있다. 이것은 결국 人間은 學習하는 機械라는 인간의 反應的 動物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Skinner역시 예외가 아니다.

Skinner는 정신분석학을 非科學的이고 심지어는 神話的인 접근으로 보고 精神分析學이 주장하는 內面的 因果律인 힘이나 매개체의 實證的 存在를 부인한다.³⁶⁾ 이것들은 機操的으로 定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正當한 假想的 構想이거나 中介 變數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精神分析學과 어떤 공통점을 共有하고 있는데 그것은

31) *Ibid.*, pp. 76-81.

32) *Ibid.*, pp. 71, 73, 182-193, 318-319.

33) *Ibid.*, pp. 107-110, 134-136, R. D. Nye, *op. cit.*, p. 54.

34) B. F. Skinner, *op. cit.*, pp. 92-93.

35) H. Bonner, *Being Mindful of Man*, Boston: Houghton Mifflin, 1965, p. 48.

36) B. F. Skinner, *op. cit.*, p. 29.

모든 人間行動의 쾌락주의 특성의 강조와 인간은 反應的인 動物이라는 개념이다.³⁷⁾

따라서 兩者는 근본적으로 자극과 반응 準據에 의해 行動이 규정되어지는 反應心理學인 것이다. 단지 차이점은 Freud의 자극상태는 libido가 還元이나 除去를 호소하는 자극물로 대부분 구성된 內面的인 것인 반면에, Skinner의 자극상태는 外部的인 자극물로 구성되어 있고 有機體가 그것을 強化하거나 除去하는 행동을 설정하게 한다는 점이다.³⁸⁾

여기에서 Freud와 Skinner가 共有하는 공통분모는 자극—반응의 連鎖結合이다. 따라서 行動主義 인간은 자극에 반응하는 反應的 動物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Allport는 이렇게 要約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 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의 行動은 복합성을 띠고 있으나 原則的으로는 豫測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의 現在는 그의 過去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인간의 意識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보편적인 法則을 추구하고 개인의 特異性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研究하고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으며 主觀的 實在가 아닌 客觀的 實在를 연구한다.”³⁹⁾

客觀性 研究의 중요성은 반응적 동물관의 핵심이 되는 자극—반응 圖式(Skinner에게는 S-O-R에 反映되어 있다. 이것은 객관적 분석의 基本的 單位이지만 여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자극과 반응의 개념이다. Skinner에 따르면, 자극이란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獨立變數로서 그것이 有機體에 미치는 결과로서 그 사건을 미리 판단치 말아야 하며, 光線, 音色, 香臭같은 物質的 자극물은 객관적 의미로 記述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狀態나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따라서 “認知되는”(“perceptual”) 世界, 즉 有機體가 경험하는 世界는 실재 세계와 相異한 것이며 실재 차이는 反應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두 有機體의 反應들, 그리고 單一한 자극상황으로부터 받는 자극의 여러 형태 아래서 경험하는 한 有機體의 여러 反應들 사이의 차이라고 한다. 더우기 어떤 자극에 대한 反應은 그 자극의 기능적 통제에 의해 “解說되어 진”(“interpretive”) 행동인 것이다. 그 기능적 통제가 “본다는 것”(“seeing”), “認知한다는 것”(“perceiving) 또는, “안다는 것”(“knowing”)이라는 活動과 느낀다는 것(sensing)의 구별을 가능케 한다.⁴¹⁾ 그는 記述하기를 “본다는 것”(“seeing”)이란 用語는 行動과 자극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특징지우는 것

37) Skinner는 “快樂主義者들이 강조한 것처럼 人間은 快樂을 極大化하고 고통을 極少化하기위해 努力하는것이 아니고, 즐거운것을 產出하고 고통스러운것을 회피하기 위해 努力한다”고했다. B.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Bantam, 1975, p. 102. 이것은 在來的인 快樂主義의 主張과 同一한 것은 아니나, 그 原理追求의 強調는 同一하다.

38)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47, 130-131.

39) G. W. Allport, *The Person in Psychology*, Boston: Beacon Press, 1968, p. 69.

40) B. F. Skinner, *op. cit.*, p. 130.

41) *Ibid.*, p. 138.

이다. 그것은 마치 反應 한다는 것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과 다른 것처럼 “느낀다는 것”(“sensing”)과 다르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認知”(“perception”)—세계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世界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行動이다. 그것은 세계 그 자체와 세계에 대한 다른 행동이나 또는 세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도 混同되어서는 안된다.⁴²⁾

여기에서도 Skinner는 S-O-R⁴³⁾ 圖式의 그의 입장을 暗示하고 있다. 그에게 단순한 S-R圖式을 포기하고 새로운 系列形成의 새기를 마련해 준 것은 1935년 출판된 “Two Types of Conditioned Reflex and Pseudo-Reflex”란 論文에서 반응과 변별적 자극물과의 관계를 論한 pseudo-reflex개념이라고 한다. 이 概念에 따르면 有機體 行動의 대부분은 자극물이 強化의 結果와 相互關聯됨으로서만이 效果的인 統制를 받는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비록 S-R圖式에 대신 Skinner가 제시하는 S-O-R圖式이 Titchener의 構造主義나 Watson의 反—內省主義의 개량된 公式이라고 하더라도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까지도 자극에 대한 反應의 連鎖라고 규정 지우는 반응적 동물관의 인간관은 脫避하지 못한 것 같다.

더우기 反應이란 것은 定義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唾液 10방울의 分泌, Skinner Box의 傾斜, 박사 학위, 權威對象을 공격함으로 자기 父親에 대한 적개심의 象徴的인 행위를 표현 한다는 등의 현상을 科學的으로 그 價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難題도 介入된다.

Bonner는 자극과 反應의 문제에 대하여 “자극”이란 單一的인 명확한 含蓄味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적절히 分析하고 Skinner의 行動主義 개념의 모호성을 비판하고있다.⁴⁵⁾ 心理學에서는 자극이 네가지 定義로 사용되고 있는데 1)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定義로는 energy란 意味로서의 자극, 즉 有機體 內의 어떤 특정한 活動을 통제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또는 종류의 사건, 2) 환경의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變化, 3) 有機體 內에서 反應을 誘發하는 추리적인(inferred) 또는 假想的인(hypothetical) energy라는 定義이다.

이러한 자극의 定義는 모든 자극이 反應을 야기시키는 것도 아니며 또 어떤 反應은 그것을 야기시킨 자극이 무엇인가를 確認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한다면 問題의 곤란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⁴⁶⁾ 上記한 (1)의 경우 한 페이지를 독서중 다른 무엇에 注意力이 산만해 지는 것, 또한 (2)는 자극 없는 反應의 경우인데 演說, 散策, 무용같은 표현력이 다양한 行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42) *Loc. cit.*

43) S-O-R圖式은 R. S. Woodworth가 20세기초에 처음으로 提示한것이다.

44) B. F. Skinner,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pp. 142-144.

45) H. Bonner, *op. cit.*, pp. 48-49.

46) cf. R. D. Nye, *op. cit.*, p. 47.

이러한 여러 階層의 자극 개념에 대하여 Skinner의 心理學은 選好的 偏向性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그의 學習機械論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Skinner의 行動主義는 학습자의 행동을 그의 過去史를 고려하여 해설하는 것이다. 음준한 客觀的 증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學習者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관찰된 행동의 推理이며 결코 그 추리 자체의 직접적인 立證이 아닌 것이며, 따라서 자극-반응 개념을 옹호하는 理論家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는 Skinner자신의 理論을 포함한 모든 심리학 이론에 대하여 요구하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Bonner는 行動主義가 현재까지 生存한 이유는 그 “眞理性”때문이다. 아니라 학습된 행동에 대한 例證을 성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⁴⁷⁾ Skinner에게는 人間이란 그의 行動의 全 經驗의 結果적 總體이며 그가 받는 개인의 성취인 것이다.⁴⁸⁾ 자극물과 이에대한 反應으로 형성되고 條件化 된다. 따라서 인간은 단편적 존재이며 分子論的이며, 機械的이며, 환경과 자극에 豫測할 수 있는 反應行動을 하게 되는 동물임으로 학습으로 규정되어지는 沒人格的인 존재인 것이다.

학습은 個的 變數를 음준하게 확인함으로써 학습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先行事件은 後續 結果의 効率的인 原因이 된다. 이러한 分子論的 격리는 그의 기계론적 인간관의 본질이다. 분자론적이고 部分的인 要素들이 그 결과를 產出하고 이 요소들은 豫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작하게 된다.⁴⁹⁾ 비록 Skinner는 19世紀의 기계론적 因果律의 입장에서 인간을 理解한 行動主義의 입장을 개선하여 기계론적 用語로 인간의 행동이 分析됨으로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⁵⁰⁾ 결국 그는 인간을 하나의 반응적 동물로 學習機械로 환원시키는 몰인격화된 인간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⁵¹⁾ 이러한 思想은 인간이 獨立的인 존재로는 창조되지 않았으나 自由로운 前向性的인, 倫理 道德的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基督敎的 理解에 위배되는 사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本質的으로 인간의 특징인 것은 科學 分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 선택이나 창의성, 도덕성 등 중요한 능력을 無視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서 推理되는 행동이 과학적으로 分析可能하다는 것이다.⁵²⁾ 물론 “道德性” “正義心” 등의 개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道德이나 正義라는 것은 政府와 宗教 또는 經濟制度 등이 制定한 사회적 수반물(social contingencies)의 特種의 產物이란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이며,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行動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려면 그 수반물(contingencies)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方向을 향한 第一步로 도덕성이

47) H. Bonner, *op. cit.*, pp. 49-50.

48) B. F. Skinner, *About Behaviorism*, p. 263.

49) H. Bonner, *op. cit.*, p. 51.

50) B.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p. 193.

51) Skinner는 자신의 입장이 還元主義的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社會科學은 社會的 過程들을 개인의 行動으로 환원하기때문에 환원주의적이라고 불리울수도 있다고 말한다. *About Behaviorsim.*, pp. 265-266.

52) *Ibid.*, p. 263.

나 정의심을 個人的 所有란 개념에서 청산해버리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⁵³⁾

그는 말하기를 “아마도 인간은 道德的 動物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존재일것이다. 그것은 그가 도덕성을 所有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人間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行動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Man is perhaps unique in being a moral animal, but not in the sense that he possesses morality; he has constructed a social environment in which he behaves with respect to himself and others in moral ways)”⁵⁴⁾ 行動主義는 도덕성을 사회환경의 어떤 特徵들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들이 항상 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經緯를 밝혀 온 것이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 뿐이다. (It does not reduce morality to certain features of the social environment; it simply insists that those features have always been responsible for moral behavior)⁵⁵⁾라고 한다.

비록 Skinner자신은 환원주의자임을 긍정하지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內部 또는 外部의 긴장에 의해 자극을 받을때, 또는 動因이나 욕구나 기아감에 자극을 받을 때 그것들을 除去하거나, 감소 시키려는 행동을 發出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意識的으로 자기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強化物이 산출한 설정된 變化의 조명 아래서 행동하는 學習機械인 것이다.

비록 학습은 行動의 變化 이지만 그 변화는 참신하고 創意的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반복과 강화의 產物이다. 反應속에서 자극 속에서 이미 混在하지 않았던 이외의 것은 없고 나의 現在行動속에서 先在 強化(“antecedent reinforcement”)로 이미 설정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주장이 된다.⁵⁶⁾ 따라서 人間은 그가 學習한 것으로 규정되어 지는 存在인 것이다.

Nye는 Skinner의 입장을 정확히 이렇게 要約하고 있다. “Skinner는 “內部”(“under the skin”)사건의 근본적 성격과 外部 환경의 사건과를 구별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발생하는 것은 자극, 反應, 結果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들은 外顯反應들(overt responses)이 그런것처럼 자극에 의해 條件形成되고 영향을 받는 것이다.”⁵⁷⁾

Skinner는 인간의 內的存在를 너무나 도외시키고 內省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內的상태의 機能을 환경의 작업에 귀속 시킴으로⁵⁸⁾ 인간을 外部的 反應의 시리즈로 축소 시킨 誤謬를 범하고 있는 듯하다. 行動主義는 인간연구에 있어서 實用主義와 같이 理論보다 事實을, 명상보다 行動을, 自我熟考보다 外部的 作業을 중시하여⁵⁹⁾ 操作

53) *Ibid.*, p. 269.

54) *Ibid.*, p. 263.

55) *Ibid.*, p. 265.

56) H. Bonner, *op. cit.*, pp. 56.

57) R. D. Nye, *op. cit.*, p. 75.

58) B. F. Skinner, *op. cit.*, pp. 273-274.

59) H. Bonner, *op. cit.*, p. 55.

的 環境 改善을 주장하므로⁶⁰⁾ 균형 잃은 偏重된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C. 急進的 決定論

Skinner의 反應的 動物觀과 쌍벽을 이루는 것은 그의 環境적 決定論이다.

Freud가 西歐 心理學에 공헌한 決定論에 동조함으로써 그의 人間행동 개념은 본질적으로 Freud의 결정론적 思考概念과 동일하다. 그는 人間 행동이 偶然性的의 結果가 아니고 因果律에 의해 決定 된다는 Freud의 주장에 수긍한다. "Freud의 위대한 업적은 人間行動에 因果律의 原理를 적용시킨 것이다. 번덕스러운, 목적 없는 또는 偶發的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행동의 樣相들을 Freud는 적절한 變數인 것으로 규명한 것이다."⁶¹⁾ 단지 精神分析學의 설명이 행동과 先行事件과의 因果律關係에 멘타리즘 개념을 삽입시키는 混同을 종종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는 비판적이다. 어떤 行動에 대한 施罰은, 그 因果關係, 즉 시벌하는 사건과 행동의 묘사만을 포함한 것이며 그 행동을 不安이나 죄책감의 개념에 관련시킬 理由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⁶²⁾

관련시킨다는 것은 실재원인 즉, 施罰하는 것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키며 또 다른 危險性은 죄책감이나 노이로제나 不安의 개념들이 과도히 중요하고 具體的인 役割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行動을 야기시킨 環境적 實재 상황들은 도외시되고 行動 自體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概念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kinner는 이 개념들을 解說적 假說들(explanatory fictions)이라고 부르며,⁶³⁾ 해설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說明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無意識 過程이란 실재로 변별력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다. 즉, 人間 자신의 行動이 야기되도록 그것을 確認하거나 命名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행동 하도록 強化되지 않는한 그것들은 변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것(he has done something...),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is doing something...), 또는 무엇을 하려는가(is going to do something...)를 알지 못 할 수 있다. 적절한 強化에 의해서 그것이 야기되어지지 않는한 이런種의 변별된 행동을 期待할 아무런 理由가 없다⁶⁴⁾고 한다.

Skinner의 心理學의 科學的 접근법은 멘타리즘 立場의 근거를 부인하고 확고한 決定論的 立場에서 행동의 觀察可能한 원인들을 추구하는 하나의 科學哲學이다. 그에게는 人間행동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지배 된다는 假定이 科學世界에서는 存在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⁶⁵⁾

60) B. F. Skinner, *op. cit.*, pp. 276-277.
 61)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374-375. R. D. Nye, *op. cit.*, pp. 38-39 참조.
 62) B. F. Skinner, *op. cit.*, pp. 178-181, 288-289.
 63) *Ibid.*, p. 375.
 64) *Ibid.*, pp. 288-289.
 65) B. F. Skinner, *About Behaviorism*, pp. 40-41.

그는 말 하기를 선택을 行使 한다는 것은 단순히 行動한다는 것이며,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선택하기 위해서 自由가 요구된다는 意味는 物理的 상황이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상태에서 아무런 阻害 要因이 없을 경우에서만 가능하다⁶⁶⁾ 말한다.

개인의 行動(또는 그의 "personality")은 그가 존재하는 客觀的 세계에서 일어나는 過去와 現在의 사건들에 의해 決定되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環境이 一次的인 重要性을 띠게 되는 것이다.⁶⁷⁾

Skinner는 先天的, 유전적인 要因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人間은 유전적인 특징을 지니고 출생하지만 "유전적 자질("genetic endowment")이란 표현은 위험한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그 理由는 反射作用이나 本能처럼 立證된 증거가 없는 특징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다.⁶⁸⁾ 더우기 그는 環境의 因果的 역할을 輕視하는 경향 때문에 어떤 特定한 行動을 "本能"으로 귀속 시키기를 거부한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行動 原因도 유전적 資質에 부과시키지 않는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유전적 자질"들을 좌우하는 것은 環境의 役割이며, 그가 生存의 不수물(contingencies of survival)이라고 부르는 環境要因이 유전적인 것을 決定한다는 사실이다. 즉, 環境이 生存을 허용하는 行動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만약 環境조건이 長期間 동안 충분히 恒常性을 유지한다면 그 環境에서 生存이 허용되는 특별한 方法으로 행동하는 生物의 種子만이 번식하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 종자는 어떤 유전적 특징을 所有하게 되며, Skinner는 이 過程을 통제 해온 것은 또 앞으로 통제하는 것은 環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⁶⁹⁾

그는 이 環境개념을 文化全般에도 적용시키면서 "人間행동의 設計란 통제를 意味하고... 인간의 행동은 새로운 強化 수반물을 설계함으로써 쉽게 變化시킬 수 있다. 敎育學, 心理療法, 犯罪學, 經濟學등의 분야에서 이것들은 설계되어 진다. 이 설계를 위하여 인간이 통제하고 助力하고, 가르치는 條件들을 중시하여 다시말하면, 우리는 社會 環境으로서 文化를 설계해야 한다"⁷⁰⁾고 말하고 있다.

Skinner는 인간이 그의 生涯를 통해 경험한 사건들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의 決定的인 重要性을 주장하고 그러한 사건과 그 결과적인 행동의 關係에 대한 知識만이 人間 機能을 적절하게 說明할 수 있으며 心理學은 그러한 關係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力說한다. 비록 유전적 要因들이 명확하게 明示되어 지고 神經生理學的 過程이 상세히 說明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특별한 環境이 그의 行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科學的 分析의 必要性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⁷¹⁾

66) *Ibid.*, p. 125.
 67) cf.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120-140.
 68) *Ibid.*, p. 40.
 69) R. D. Nye, *op. cit.*, p. 38 참조.
 70) B. F. Skinner, *About Behaviorism*, p. 226.
 71) *Ibid.*, pp. 273-274.

특히 이러한 論理의 妥當性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유전적 構造보다는 그의 환경改 善이 더 용이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行動 變化에 따라야할 필수적인 문제는 환경要因들의 연구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철두철미한 人間主義 思想에 근거하 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端的으로 말해서, Skinner에게는 유전적 構造와 개인의 生育史가 인간행동의 原因 이 되지만⁷²⁾ Skinner자신의 연구는 後者에 역점을 두어 환경에 있어서 客觀的인, 관 찰할 수 있는 狀態의 영향에 강조점을 두고있다. 그는 인간이란 주로 환경에 의해 支 配되고 형성되어지는 환경決定論的 存在 이지만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인 두 要因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인간행동의 완전한 豫測과 統制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Skinner의 決定論은 Freud의 因果律의 原理를 수용하면서 인간固有의 특성 들의 主觀性을 부인하고 科學的, 客觀化 分析의 산물로 특질의 行動化에 귀속 시키는 과잉 單純化의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 他律的 人間觀

(1) 自由와 選擇(Freedom and Choice)

Skinner는 自我概念을 행동분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편의상 이것을 단순히 “機能的으로 통일된 反應體制를 대표하는 장치(a device for represent- ing a functionally unified system of responses)”로서 하나의 평범한 行動의 形態(a common model of action)⁷³⁾로 定義하고 있다. 이 概念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논쟁적 인 그의 주장은 인간의 目的性, 意志, 目的論이 否定되어 있다는 문제이다. 그에 따르 면 인간의 모든 行動이 先在조건형성(보통 機操的)에 의해서 決定되어진다는 것은 일 상생활의 行動들이 조심성 있게 계획된 결과가 아니고 이전에 強化 되어진 反應에 의 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 行動에 뒤 따르는 結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過去에 그가 따랐던 흡사한 행동의 결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自由로운 行動이란 없 다고 말한다. (“Instead of saying that a man behaves because of the consequences which are to follow his behavior, we simply say that he behaves because of the consequences which have followed similar behavior in the past.”)⁷⁴⁾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나는 自由가 전연 存在한다는 것을 否認한다. 나는 그것을 否 認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나의 프로그램은 可笑로운 것이 된다. 변덕 슥게 설 치는 研究對象에 대한 科學은 있을수 없다.” (“I deny that freedom exists at all. I must deny it…… or my program would be absurd. You cannot have a science about

a subject matter which hops capriciously about.”)⁷⁵⁾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인간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 것은 神話的 개념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自律的 人間의 기능은 소멸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⁶⁾ 그의 見解로 分明한 것은 客觀的 行 動科學에서 主觀的인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無知나, 失手나, 誤謬의 책임이나 또한, 인간이 소유한 知識, 成熟, 業蹟의 공로 모두가 絕妙 하고 복잡한 조건형성의 결과인 것 뿐일지라도 Skinner에 의하면 그 責任은 환경에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나, 그는 讚辭와 驚異로운 행동을 아직껏 說明할 수 없다 (the behavior we admire is the behavior we cannot yet explain)⁷⁸⁾고 暗示함으로 그러한 적극적 強化 物(공로나 찬사와 같은)이 그의 他律的 人間觀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2) 自制(Self-Control)

그는 또한 個人의 責任論이 행동 통제의 技法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 하면서 그 技 法이 “책임감” (“a sense of responsibility”)을 야기 시킨다고 주장한다.⁷⁹⁾ 이것은 行 動의 不可避性에 대하여 통제설계를 강화하여 인간의 행동을 改良할 수 있다는 말이 다. 統制技法의 설계에 대한 강화로 타당성을 강조하는 理由는 自制라는 것이 內在的 良心이 아니고, 조건 형성과 강화의 意味로 설명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過飲으로 父母의 禁戒나 社會적 비판 때문에 알콜에 대한 嫌止자극이 조건형성된 경 우에 飲酒를 施罰하는 것으로 —단순히 “認定치 않는 것으로” — 음주를 통제하는 행동 의 自動強化를 배척하는 셈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이 조건형성된 嫌止的 자 극을 감소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自制行動은 社會가 責任을 져야 할 것 같다.⁸⁰⁾

또한 사람이 자신을 統制 한다는 것은 그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he is behaving). 사람은 행동이 函數가 되는 變數들의 操作을 통해서 남을 통제하는 같은 正確度로 자신을 통제한다. 그의 행동은 分析의 적절한 대상이 되며 점진적으로 자신 밖에 있는 變數들로 설명 되어져야 한다.⁸¹⁾

따라서 사람에게 “意志力”이나 “自制”를 행사 하도록 권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권유는 실재 過程을 理解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自制行動의 분석은 적절한 自制技法을 學習케 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⁸²⁾

75) B. F. Skinner, *Walden Two*, New York: Macmillan, 1976. pp. 241-242.

76) B.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p. 54.

77) *Ibid.*, p. 19.

78) *Ibid.*, p. 54.

79)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 116.

80) *Ibid.*, p. 240.

81) *Ibid.*, pp. 228-229.

82) *Ibid.*, p. 24.

72) cf. R. D. Nye, *op. cit.*, p. 39.

73)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 285.

74) *Ibid.*, p. 87, 그리고 p. 447 참조.

이 自制技法은 外部的 자극의 方法, 포화성(satiation), 적극적 또는 嫌止자극의 활용, 정서적 경향의 操作등의 행동을 포함한다. 그러나 Skinner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이러한 행동은 內部的 “自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형성의 결과이며, 強化수반물의 體制에서 수여되는 조건화된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Skinner는 自制란 궁극적으로 환경의 變因과 個人的 強化 經驗史(reinforcement history)에 좌우되고 “개인적 책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어떤 內在的 힘이 존재한다는 假想은 불필요한 것이며 “자기결정”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통제는 환경적 조건과 個人的 過去와 現在의 경험들에 좌우되는 것이다. 비록 개인이 환경을 變化시킨다 하더라도 환경이 개인을 決定짓게 된다.⁸³⁾

(3) 思考, 決定, 創意性 (Thinking, Decision-making, Creativity)

思考作用은, 行動主義 해석이 만족하지 못한 것을 Skinner는 是認 하면서도 정신적, 認知的 설명은 설명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⁸⁴⁾ “思考 한다는 것은 行動 한다는 것이며, 행동을 정신에 할애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Thinking is behaving; the mistake is in allocating the behavior to the mind)⁸⁵⁾는 것이다.

決定하는 것, 문제해결을 위한 思考, 망각한 사실의 想起能力, 모두가 일차적으로 개인적 行動(private behavior)에 불과하다. 決定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에게 誤導되어 강화 되어진 행동의 한 결함 형태로 생각하고, 우유부단이란, 反應이 또 다른 強度를 가진 반응으로 發出(emitted)될 수 없고 강화를 배제하므로 嫌止的일 때 발생한다.⁸⁶⁾

이와같이 思考作用은 하나의 行動 形態이지만 인간이 자신에 대한 知識이 Skinner가 말하는 “言語社會”(“verbal community)의 助力으로 意識化 됨으로⁸⁷⁾ 사회적 소산물인 것처럼⁸⁸⁾ 思考作用 역시 환경의 所產物인 것이다.

Skinner는 어떤 對象에 대한 반응 없이 그 대상의 특성에 非言語的으로 반응하는 抽象力(abstract)에 의한, 추상적 思考 역시 認知的 기능이 아니고 特種의 환경의 소산물이라고 말하면서⁸⁹⁾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 “사람이 概念이나 抽象을 형성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만 어떤 종류의 強化 수반물들의 어떤 反應을한 자극의 특성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⁹⁰⁾

思考作用의 특이한 局面으로서 獨創性 또는 創意性 같은 행동은 종종 “天才性” “洞

83) R. D. Nye, *op. cit.*, p. 67.

84) B. F. Skinner, *About Behaviorism*, pp. 113-114.

85) *Ibid.*, p. 115.

86)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242-244.

87) Skinner는 自身에 대한 우리 知識은 많이 制限되어 있다는 중요한 點을 잘 指摘하고 있다. *Beyond Freedom and Dignity*, pp. 182.

88) *Ibid.*, pp. 182-183.

89) *Ibid.*, p. 180.

90) *Ibid.*, p. 184.

察力” “才能”으로 귀속 시키지만 만일 개인의 강화 경험사와 유전적 資質이 충분히 고려 된다면 또, 만일 現在 強化수반물이 상세히 묘사될 수 있다면 창의적 행동에 대한 解說的 虛構性은 감소될 것이란 것이 그의 견해이다.⁹¹⁾

창의성은 지금 상태에서 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빈번히 強化 경험들에서 결과된 다양한 行動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 대개 창의성이 발생하는 狀況 속의 자극물은 강화되었던 이전의 자극물과 相貌性을 지니며 그러한 자극물 때문에 다양한 반응들이 형성되고, 이 반응들이 “특이한” 행동들이 조형될 때까지 다르게 강화된다는 것이다.⁹²⁾ 때때로 “突然變異”의 행동이 특수한 환경조건의 偶發的 발생으로 생겨날 수 있으며, 이 행동들이 성공적 이라면 (強化 된다면) 그 個人은 독창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⁹³⁾

(4) 정서 (Emotion)

情緒이란 인간의 內部에서 作用하는 어떤 힘이라는 通常觀念을 반박하고 情緒의 존재는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 因果的 機能을 반대한다. 그는 情緒를 반응의 형태로 定義하고 假想的인 행동의 가상적인 內的 動機誘發者로 定義하지 않는다.⁹⁴⁾ 理由는 단순히 內的 상태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적감정”으로 귀속되는 행동들은 강화수반물, 변별적 자극의 다른 환경 조건들의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情緒의 과학적인 분석은 “操作할 수 있는 조건들”(“manipulable conditions”)을 決定한다. 예를들어 不滿으로 인한 직무의 태만, 분노로 인한 공격성, “불행”의 결과로 인한 침울, 애정의 결여, “공포”에서 오는 높은 脈搏度등 모두는 일차적인 환경적 決定 要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강화경험사와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의 분석에 의한 “機操的 說明”—즉 직접적인 因果律의 용어—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⁹⁵⁾

(5) 特性 (Traits)

특성이란 영구적인 人間행동의 특징이 아니고 그것이 특성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한 순간순간이 特性名(trait names)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Skinner는 말한다.⁹⁶⁾ 대개 형용사로 표현되는 이 특성명들은 (“공격적인”, “무지한”, “열광적인”, “자애적인”) 개인에게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그러한 개념은 그 행동을 전연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성 理論家(trait theorist)는 형용사 대신 명사

91) cf. R. D. Nye. *op. cit.*, p. 67.

92)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p. 254-255.

93) B. F. Skinner, *About Behaviorism*, p. 247.

94) B. F. Skinner, *Science and Human Behavior*, p. 168.

95) R. D. Nye, *op. cit.*, pp. 70-71.

96) B. F. Skinner, *op. cit.*, p. 195.

로 언급되는 특성등(“知性”, “攻撃性”, “熱狂”)을 行動의 原因으로 간주하고 개념적 원인으로서는 특성의 타당성을 正當化하는 행동 의의 要因과 아무런 聯關性을 갖지 않는다고 반박한다.⁹⁷⁾ 原因의 분석은 強化 수반물에 근거하지 않으면 有效性이 없다는 것이다.

Skinner가 이 특성의 문제를 神學的 입장에서 고찰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人間이 犯罪하기 때문에 罪人인가, 그렇지 않으면 罪人이기 때문에 犯罪하는가?” (Does man sin because he is sinful, or is he sinful because he sins?)란 쓸모 없는 질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理由를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

“인간은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機操的 定義를 제시한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行動을 假想的 內的 特性(inner traits)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罪스러운” 것이라고 부르는 어떤 行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 질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상황에 좌우된다. 內的 所有(사람이 ‘아는’ 그 罪)로서 제시된 罪는 강화경험사에서 발견되어 저야 한다.⁹⁸⁾

따라서 인간이 어떤 특정한 哲學이나 神學(理想主義, 唯物主義, 칼빈主義)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어떤 樣式의 行動을 한다는 것은 환경적 조건들의 영향結果를 要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評價와 結論

多樣한 心理學 理論이 다양한 人間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人間觀에는 그 理論家의 價値觀과 倫理觀이 언제나 反映되어 있는 것이다.

이 論文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Skinner는 인간을 學習하는 總體의 行動으로 집약시켜 強化수반물의 결과에 좌우되는 環境의 所產物로 보고 인간의 內面性의 重要性을 도외시 하는 人間觀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問題가 인간 자신 보다는 인간의 行動 속에 있다는 것이다. (The problem is in the behavior, not in the person).

그러나 현재로 여러 심리학적 문제, 특히 예술과 도덕, 과학적 창의성, 多顯的인 인간의 感受性, 言語, 사회, 성격등의 문제들이 아직도 論議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Skinner의 생각처럼 단순한 “客觀的 標示器”의 固定된 機操的 연계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만이 심리적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Skinner의 行動主義는 本體論的인 問題를 회피하고 感覺器, 器官, 神經系 메카니즘에 역점을 둔 “객관적 주변주의”로 사려되며 인간 본질을 분석, 이해하기보다는 인간

97) *Ibid.*, p. 202.

98) B.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p. 188.

內在의 일부를 指標하는 pointing-finger에 불과하다고 보아진다.

인간사회의 커뮤니케이션 問題만 하더라도 S—O—R 파라딤에 근거한 定義로 中介할 수 없는 요소들이 허다한 것이다. 인간의 지각이나 인식이나 言語 속에서도 定義를 基調로 한 연계성이나 변별적인 “관찰 가능한 속성” 이나 “증후”또 그들의 결합이나 禁忌술을 열거하는 것으로 正確度 높은 의미를 전달 못하는 變數들도 수다하다⁹⁹⁾

Koch가 적절히, 그러나 어느 程度 冷笑的으로 지적한 바와같이 “S—R 理論家들의 귀착점은 진정한 분석적 개념의 組立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모든 “因果的” 인것, 또는 “기능적” 思考作用에 前提된 일종의 원시적 思考 類型이다. 사실상 그들이 現在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학을 위한 일차적 분석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은 Hume의 因果律의 分析을 부드럽게 위장시킨 paradigm이다.¹⁰⁰⁾

더우기 넓은 意味에서, Koch가 지적하듯이 Neo- Behaviorism은 古典的 條件形成과 實證哲學이나 新實用主義나 操作主義의 과학 모델형과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S—R Paradigm을 더 세분하여 Skinner는 行動의 因果方程式을 위해 어떤 개념(“中介變數”)을 導入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적”(“internal”) 行動의 決定要因을 대표하는 것으로 Skinner가 논박하는 內面 상태의 主觀化 개념과 모순 되는 주장이다. 이것은 Hull이 제시하는 形式에서도 先在 “자극” 變數에 유일하게 결정지워지지 않은 몇 개의 中間變數로 구분할 수가 있다.¹⁰¹⁾

이러한 Skinner의 모순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Skinner는 pavlov의 古典的 조건형성 모형은 인간을 자극에 의해 반응이 誘發되는 (elicited) 기계로 개념화 시켰으나, 자신의 機操的 조건형성은 인간을 그 영향의 強度가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行動을 發出 (emitted)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發出하는 行動에도 불구하고 그의 支配的인 原理는 環境의 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本質的 속성들 이라고 할 수 있는 自由나 選擇, 또는 前向性和 意圖性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環境과 環境적 수반물은 因果律에 따라 좌우 된다는 그의 주장은 그의 行動 개념이 Freud의 決定論과 本質的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現代 學習 理論家들은 Skinner가 주장하는 것만큼 古典的 조건형성과 Skinner의 理論에는 차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Bandura나 Hilgard나 Bower등은 Skinner의 통제된 有機體가 어떻게 지배적인 強化 수반물을 變化시킬 수 있는 自由가 있느냐는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⁰²⁾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유사하고 固有性이 없다고 믿기때문에 동물을 對象으로 한

99) S. Koch, “Psychology and Emerging Conceptions of Knowledge as Unitary,” in T. W. Wann (ed.), *Behaviorism and Phenomen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p. 29.

100) *Ibid.*, p. 34.

101) *Ibid.*, p. 12.

102) cf. R. B. Ewen, *op. cit.*, p. 429.

연구 결과처럼 인간도 學習 機械와 같은 강화물로 조건형성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은 下等動物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들, 例로 들면 認知力이 因果律에 통제되는 것이지만 동물이 소유한 能力을 초월하는 것인지를 理解할 필요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Lana는 Gestalt심리학 方法論의 취약점은 그 豊요한 理論과 일관성이 없는 點이며, Skinner의 理論체계는 理論에는 약하고, 方法論에는 豊요함을 전제하면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¹⁰³⁾

이를 몇 가지로 要約해 본다면

1. 인간이 자신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이 첫째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심리학에 있어서 認識論의 문제가 된다.

2. 설명은 결코 豫測 以上の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理論적인 체계 속에서 예측된 可能的 수반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란 질문은 Skinner에 대한 타당성 있는 질문이다.

3. 科學적인 인간행동에 대한 科學적인 豫測 범위 내에서 사용된 歸納法과 演繹法의 原理들을 어떻게 알기에 이른가 라는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한 회답은 연역법과 귀납법의 성격은 科學的 實驗의 결과로 派生되는 것과 무관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시사할 것이다.

4. 또한 數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 행동으로서의 言語 習得과 사용은 그 構造가 주는 제약성 때문에 어떤 強化 體系 만으로나 原理적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물론 Skinner는 1932년에 이미 60세까지 30년간의 자신의 연구계획 윤곽을 설정하여 [1. 행동의 實驗的 記述, 2. 행동주의 심리학, 3. 認識論(과학적인 것만) 4. 認識論(과학적이 아닌 것)]¹⁰⁴⁾ 인식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나 아직껏 체계적인 인식론은 수립하지 못한 듯하다.

Skinner가 行動修正, 심리요법의 方法論 改善, 다양한 프로그램의 학습지도, 효과적인 조건형성, 強化 스케줄의 體系化등으로 인간행동의 중요한 決定要因에 대한 注意를 촉구하여 특히 教育學界와 心理學界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는 방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意味에서는 환경적 강화의 소산물이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었다.

그러나 이 論文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Skinner의 인간관은 인간의 특유성, 주체성, 복합성, 총체성을 도외시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自由, 自發性,

103) R. E. Lana, *The Foundations of Psychological Theor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6, pp. 136, 58, 92, 135.

104) B. F. Skinner,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p. 115.

창의성, 도덕성등을 可顯的인 행동의 범주에 환원시킴으로 인간의 단편적 요소에 치중하여 개개의 樹木을 보고 森林을 보지 못한 分子論的인 인간관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다른 피조물과 달라 神的命命(divine fiat)이 아니고 神的相議(divine consultation)와 점차적 變貌(gradual transformation)를 통해서 또 神과 人格的 交際가 가능한 神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 창조 되었다고 본다.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한, 自發的인, 계속적인 창의적 활동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개성과 독창적인 자기표현으로, 획일성과 단조성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消去性에 대하여 도전하여 자아를 實現하고 目的性과 意圖性, 前向性을 가지고 활동하는 自律的인 면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Skinner의 行動主義가 인간의 自由意志를 반박하고 인간을 他律的 存在로 보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해결 못한 인간행동의 다른 면모도 未來에 과학적으로 立證될 것을 관망하고 있다. 이것은 反對로 진정한 行動工學이 인간의 自律性, 自發性, 創意性들의 본질을 미래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默示的 도전이 아닌가도 사려된다.

“인간은 과연 그의 환경에 의해 통제 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환경은 대체로 인간이 조성한 것이다. 문화의 進化는 自制의 거대한 훈련연습이다.

科學的 人間觀은 적극적인 可能性들은 提示한다. 우리는 人間이 어떠한 人間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可能性은 아직껏 보지 못했다.”¹⁰⁵⁾

이 暗示는 비단 行動主義者가 行動主義에 대한 挑戰이며 展望일뿐 아니라, 現在로는 不可解한 事實들이 未來에 科學者들을 놀라게 하는 科學的인 事實들로 立證되리라는 可能性을 行動主義科學에 대해 提言하는 基督教의 觀望이며 挑戰이기도 한것이다.

105) B. 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pp. 205-206.

參 考 文 獻

Allport, G. W., *The Person in Psychology*, Boston : Beacon Press, 1968.
 Bonner, H., *On Being Mindful of Man*, Boston : Houghton Mifflin, 1965.
 Capretta, P.J., *A History of Psychology in Outline*, New York : Delta Book, 1967.
 Evans, R. I., *B. F. Skinner: The Man and His Ideas*, New York : E. P. Dutton, 1968.
 Ewen, R. B.,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Lana, R. E., *The Foundations of Psychological Theory*,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76.
 Nye, R.D, *Three Views of Man*, Monterey, CA:Brooks/Cole,1975
 Skinner, B.F About Behaviorism, New York:Vintage,1976.
 Skinner, B. F.,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 Bantam, 1975.
 Skinner, B. F., *Particulars of My Life*, New York : Alfred A. Knopf, 1976.
 Skinner, B. F.,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 The Free Press, 1953.
 Skinner, B. F., *The Shaping of a Behaviorist*, New York : Alfred A. Knopf, 1979.
 Skinner, B. F., *Walden Two*, New York : Macmillan, 1976.
 Smith, S., *Ideas of the Great Psychologists*, New York : Barnes & Noble Books, 1983.
 Wann, T. W. (ed)., *Behaviorism and Phenomenology*,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Watson, J. B., *Behaviorism*, New York : W. W. Norton, 1924.
 Watson, R. I. Sr., *The Great Psychologists*, 4th ed., New York : J. B. Lippincott, 1978.
 Wells, H. K., *Ivan P. Pavlov*,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56.

판넨베르크(W.Pannenberg)의 해석학

이 보 민*

◇ 목 차 ◇

1. 슬라이엘 막허(F.Schleiermacher)의 해석학적 관점
2. 딜타이(W.Dilthey)의 해석학
 - 2.1 해석학의 기초로서의 기술심리학(記述心理學)
 - 2.2 역사적 세계의 구축으로서의 해석학
3. 볼트만(R.Bultmann)의 해석학
4. 가다머(Gadamer)의 해석학
 - 4.1 과거와 현재 사이의 거리와 지평융합
 - 4.2 작용사적 의식과 역사의 전체성의 거부
5. 판넨베르크(W.Pannenberg)의 해석학 : 역사의 전체성에 대한 관심
 - 5.1 판넨베르크와 하이데거의 인간 Dasein의 전체성
 - 5.2 개인적 Dasein의 전체성을 위한 역사의 전체성
 - 5.3 역사적 전체성과 기대성
 - 5.4 역사적 전체성과 예수님의 부활사건
 - 5.5 신학적 해석학으로서의 판넨베르크의 해석학
6. 결론 : 판넨베르크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판넨베르크(Pannenberg)는 역사를 신학적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그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의 계시를 어떻게 역사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밝힐 수 있을가를 중시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곧,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해석학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그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결국 성경본문이 지니는 문자적인 의미와 성경이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알려진 역사적 사건들의 실제의 진행 사이에 어떤 괴리(Split)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본다¹⁾. 그것은 다르게 보면 오늘의 우리시대의 현재

*부교수, 윤리학 전공

1) W.Pannenberg, *Grundfragen systematischer Theologie*, p.91.